



# 양계단지, 현실에 맞는 적절한 후속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정리/김동진 기사

△ 36만수 규모를 자랑하는 화순양계 단지전경

**정**부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91년부터 축산농가에 각종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양계)단지 조성사업이 이중 하나에 해당된다.

양계단지 조성사업 실시 초반부터 민원 문제, 부지 조성 문제, 토지소유 분할 문제 등이 가시화 되면서 양계단지

조성사업의 본래 목적이었던 전업양계농가 육성, 사양관리 공동체제 구축으로 규격품 생산 및 경영합리화 도모가 방향을 잃어갔다.

더욱이 생산과잉 초래, 질병 양산으로 양계단지에 입지를 모았던 양계인들이 경영난 등으로 양계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나타나며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본고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화순양계단지(대표 윤석현, 현 광주전남지부장)를 방문, 양계단지의 문제점들을 들여보고 현 당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화순양계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대다수 양계단지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어 기사를 게재하였다.



△ 화순양계단지 윤석현 대표(본회 광주전남지부장)

## 1. 화순양계단지 현황

화순양계단지는 지난 '91년 11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약 8개월간에 걸쳐 17,312평(57,254㎡)의 부지를 매입하고, '92년 3월 당시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음에 따라 '92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94년 12월에 20개동(1동에 263평)이 연차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양계단지의 면모를 갖추었다.

사육규모는 건평 5,271평(17,426㎡)에 36만수로 계사 형태는 고상식 A형 개방계사로 건축되어졌으며 입주해 있는 10개 농가들이 가구당 2개 동씩 소유, 관리하고 있다.

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게 완공되었는데 이는 대상농가 선정, 토지소유분할 문제, 주민들의 민원 문제, 자금 및 인허가 문제 등 풀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2. 개별 경영으로 문제점 심화

화순양계단지는 '94년 2월부터 70일령된 중추 약 18만수를 입추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당초 계획인 사료구입에서부터 사양관리, 계란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제 구축을 통하여 최대한 생산비 절감차원으로 유도하였으나 토지 소유분할 후 사료구입을 비롯하여

중추구입, 기타 물품구입 등이 제각기 이루어 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농가들이 개별 관리를 하다 보니 원가절감은 커녕 원가 상승이라는 원인을 낳게 되었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질병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대처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 화순양계단지의 맹점이었다.

즉 양계단지의 문제점 중 60% 이상이 질병에서 기인될 정도로 질병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는 당초 퇴비화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영세업자들에게 고상식 계사에 퇴적된 계분을 치우도록 용역을 주었으나 2~3개월 동안 저장된 계분처리가 생각대로 안되고 계분 지연처리에 따른 가스발생, 파리, 모기 등 각종 질병 원인균들로 인해 질병발생은 물론 환경오염 등 민원 문제가 발생하기 일쑤였다.

또한 육추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량중추 구입이 어렵고 각 농장 마다 여러 중추농장에서 구입해 오다 보니 구입 가격 상승은 물론 질병 전파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사료, 약품,

계분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 차량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결국 농가들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9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가금티푸스가 화순양계단지에 찾아들었고 '96년 기존 참여농가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즉 구성원들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개별 방역 및 개별 사양으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금티푸스가 발병된지 약 3개월 후에야 대책을 강구할 정도였는데 이때는 이미 20개동이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또한 집하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계란 유통에도 혼란을 가져왔는데 계란생산량이 많

다보니 상인들에게 의존도가 높아 상인들의 횡포는 날로 더욱 심해졌으며 체화를 우려한 농가들이 서로 덤핑을 일삼는 등 농가들 마저 불신의 늪이 깊어갈 수 밖에 없었다.

### 3. 공동 협조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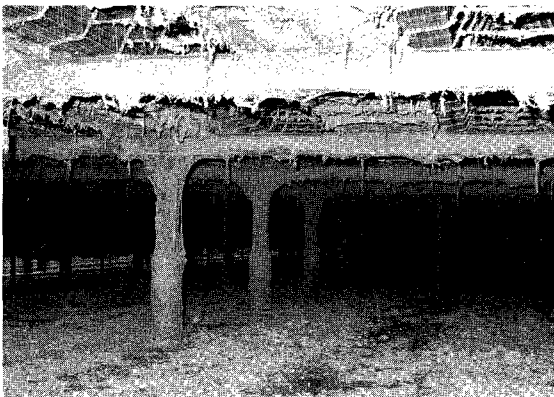
화순양계단지는 '96년 5월을 계기로 거듭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입주농가들이 새로운 젊은 양계인들로 대거 탈바꿈한 것이다.

윤석현 대표는 농가선정의 첫째 조건으로 협동과 단합정신이 투철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 농가들을 선정하였다. 현재 10개 농가 중 윤석현 대표를 포함해 단 2개 농가만이 기존 농가들

이며 나머지 8개 농가는 '96년 7월 이후 교체된 농가들이다.

교체전에는 단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닭을 관리하였으나 교체후 단지내로 전부 입주를 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연령층을 보더라도 교체전 50대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박철우 총무 등 6명이 30대로 구성되어 있어 제2의 창업정신으로 거듭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을 주축으로 사료,약품, 축산기자재, 중추 구입 및 계란 판매의 공동화를 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입주농가들의 특수성을 살려 사양(전산)관리팀, 방역팀, 대외협력팀, 구매팀, 기계설비팀, 판매팀 등 책임제로 나누어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 질병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는 계분벨트를 설치중에 있다. (좌:설치전, 우:설치후)



△환기에 도움을 주는 환기통 설치 (좌)와 미설치 (우)농장

하는 것이며 건립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97년 중점 사업으로 중추사 신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질병없는 우량중추를 생산, 육성함으로써 질병퇴치와 생산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

침을 세우고 있다.

계란유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깨끗한 계란을 상품화시키기 위해 GP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화순양계단지가 풀어나가야 할 당면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상품화에 있어서는 이미 1개 입주농가가 시내 매장과 계약을 맺으면서 상품란을 시범사업으로 판매에 들어갔으며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닭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사마다 환기통을 설치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가

예전에는 회의가 거의 없어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던 것과는 달리 단지내 구성원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을 만나 현안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공동체제로 전환하였다.

한 예로 가시화된 것이 6개 사료회사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사료구매가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1개 사료회사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이 회사로부터 사료전담차가 사료운송을 맡고 있을 정도로 바뀌어 졌다.

#### 4. 질병예방에 중점

입주농가들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질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윤석현 대표를 주축으로 첫번째 착수한 사업이 입주 농가당 5,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계분벨트를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올 3월까지 끝낼 계획인데 이중투자라는 모순은 있지만 이로 인해 3~4개월씩 방치되어 있던 계분을 15일 이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퇴치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추진계획에 있는 것이 계분발효 시설이 구비된 비료공장을 마련



△화순양계 단지를 이끌어갈 젊은 입주 농가들(좌부터 네번째 윤석현 대표)

축위생연구소 중부사업소와 연계해 월 1회 가검물 및 샘플을 수거하여 정기검진을 받는 형식으로 질병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윤 지부장은 '96년도가 양계단지의 과도기로 보고 정부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후속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화순양계단지의 현 당면 문제인 증추사 건립, 계분 발효시설 설치, GP센타 건립 등 현실적인 자금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자금을 받은 모든 농가들이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5% →

3%)와 현재 3년거치 7년 구분 상환제도중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어야 양계단지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5. 결론

윤석현 지부장은 화순양계 단지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협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전보다 정보망이 넓어지고 상인들에 의해 덤핑판매가 더욱 심화되다 보니 획기적인 유통구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양계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윤

부지장은 양계질병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병방역단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지부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다.

“한때는 개별농가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단지 운영이 무척 힘들었으나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협동체제를 유지해 나가다 보니 조만간 단지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윤 지부장은 단지의 영농조합법 인도 곧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계단지의 구성에 따른 문제점이 비단 화순양계단지 만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그 단지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래의 양계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형평에 맞는 적정수준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특히 유통의 불합리를 해결하는 쪽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양계단지 사업으로 인해 과잉생산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계